

李奎植\*  
趙南勳\*\*  
鄭慶均\*\*\*

# 追加子女不願集團婦人에 있어서 個人特性 및 事業變數가 避妊實踐에 미치는 影響

目次

- I. 問題의 提起
- II. 研究方法
- III. 分析指標의 設定
- IV. 避妊實踐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 V. 結論

## I. 問題의 提起

지난 16年間 우리나라 家族計劃事業이 이룩한 成果는 至大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지만 同事業이 解決해야 할 課題는 아직도 散在되어 있다. 즉 1976年 現在의 避妊實踐率이 44.2 퍼센트<sup>1)</sup>로 1964年의 9 퍼센트<sup>2)</sup>에 比해서는 括目할 만한 增大를 期했다고 하나, 우리나라와 産業化程度나 經濟水準이 비슷한 台灣, 「싱가폴」, 「홍콩」등의 避妊實踐率<sup>3)</sup>에 比해서는 아직도 낮은 水準에 머물러 있어 避妊實踐者의 広範圍한 擴大가 繼續 要求되고 있다.

특히 1976年度에 家族計劃研究院에서 實施한 全國出産力 및 家族計劃評價調査에 의하면 우리나라 全体 有配偶婦人 가운데서 97.0 퍼센트가 적어도 한가지 以上の 避妊方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0.7 퍼센트가 세가지 以上の 避妊方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sup>4)</sup> 避妊에 대한 知識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上記調査에서 現在의 子女數에 대한 見解를 살펴 본 結果, 子女가 많거나 適當하다는 婦人이 무려 82.7 퍼센트나 나타나고 있으나<sup>5)</sup> 實際 避妊을 實踐하고 있는 婦人은 44.2 퍼센트에 그치고 있어 家族計劃事業이 受容 可能한 많은 對象者를 事業속에 끌어들이지 못하는 問題點을 볼 수가 있다.

\* 家族計劃研究院 主任研究員.

\*\* 家族計劃研究院 首席研究員.

\*\*\* 서울대학교 保健大学院 助敎授.

註

1) 家族計劃研究院, 1976年 全國出産力 및 家族計劃評價調査, 1978.

2) 保健社會部, 1965年度 全國 家族計劃實態調査報告, 1965年 12月. p. 10.

3) 「홍콩」 및 「싱가폴」의 1977年 現在 避妊實踐率은 各各 72「퍼센트」, 71「퍼센트」로 매우 높은 實踐率을 보였으며 台灣의 경우도 1976年 現在 63「퍼센트」水準에 머물고 있었다. The Population Council, "East-Asian Review, 1976~1977."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 9, No. 9, Sept. 1978.

4) 1976年 出産力調査의 6,020名 對象者中 1,355名을 별도 標本抽出하여 分析한 下記 研究에서 이러한 事實이 나타남.

趙南勳, 李奎植, 洪性烈, 金星姬, 出産行態에 影響을 미치는 經濟的 要因分析, 家族計劃研究院, 1977, p.165.

5) 家族計劃研究院, 1976年 全國出産力 및 家族計劃評價調査, 1978.

이러한 事實보다 더욱 重要한 問題는 家族計劃事業이 接近하기 가장 쉬운 集團인 追加子女를 願치 않는 婦人들 마저도 많은 數가 避妊圈域外에 머물러 있는 事實이다. 즉 同調査結果에서 보면 全体調査対象者 6,020名의 有配偶婦人中 57.4 퍼센트가 追加子女를 願치 않고 있으나 이들에 42.6 퍼센트나 되는 많은 婦人들이 전혀 避妊을 使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sup>6)</sup> 뿐만 아니라 이들의 現在子女數도 3名이 넘는 婦人이 무려 74.3 퍼센트에 이르고<sup>7)</sup> 있음에도 불구하고 避妊實踐率이 낮은 點은 家族計劃事業이 이들에게 만족스러울 정도로 接近하지 못하고 있는 問題點을 지닌다고 하겠다.

따라서 向後의 家族計劃事業은 이들을 第1次的 対象集團으로 삼고 이들에 대한 集中的인 勞力이 投入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追加子女를 願치 않는 婦人層에 대한 特性和 避妊實踐에 영향을 미치는 諸 要因을 究明하여 이를 土台로 한 接近方案이 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點에서 本研究은 追加子女를 더 以上 願치 않는 婦人集團을 對象으로 하여 이들의 避妊實踐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을 그들의 個人的 特性和 家族計劃事業變數에만 限定시켜 分析함으로써 이들의 避妊實踐率을 提高시킬 수 있는 事業內的 要因을 發見하는데 그 目的을 두었다.

## II. 研究方法

本研究을 위한 資料는 1976年度 全國 出産力 및 家族計劃評價調査 資料中에서 個人調査資料를 利用하였다. 上記 調査는 1976年 10月中에 家族計劃研究院에서 全國을 對象으로 하여 15歲에서 44歲層의 有配偶婦人 6,020名을 標本抽出하여 面接으로 出産力과 家族計劃등에 관한 事項을 調査한 것으로 本研究에서는 이들 6,020名 가운데서 追加子女를 願치 않는 3,560名을 選定하여 分析對象으로 하였다.

本研究에 主로 使用한 分析方法은 多分類分析法(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sup>8)</sup>이며, 다만 몇가지 特殊한 경우에만 限界製表를 利用토록 하였다.

本研究에서 多變數分析의 여러가지 技法中에서 回帰分析法和 分散分析法을 土台로 하여 研究 開發된 多分類分析法를 使用한 것은 다음의 몇가지 理由에서 였다.

첫째, 本研究에 使用되는 數 많은 變數가 名目變數(nominal variable or qualitative variable)로 되어 있어 名目變數를 量的變數(quantitative variable)로 置換함으로써 發生될지 모를 偏倚를 防止키 위함이었다. 물론 多分類分析에 있어서도 名目變數는 量的變數로 置換되어야 하나 多分類分析에서 나타나는 係數들의 計算過程에서 說明變數의 變量은 거의 除外되고 從屬變數

註 6) 前掲書

7) 前掲書

8) 多分類分析法에 대한 詳細한 說明은 다음 冊을 参照할것.

Frank M. Andrews, Morgan. J. N., Songuist, J. A. and Klem, L.,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73.

의 變量만으로 計算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名目變數 혹은 質的變數의 경우는 回歸分析法 보다도 多分類分析法이 더욱 有用한 利點이 있다. 그리고 分散分析法을 使用할 경우는 說明變數들간의 相對的 重要度가 算定될 수 없으나 多分類分析法은 說明變數의 變量을 「더미」(dummy variable)로 看做하여 計算이 이루어지는 面도 있어 分散分析法의 弱點도 補完해 주는 利點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本研究에서 利用되는 從屬變數와 說明變數간의 關係를 보면 說明變數가 從屬變數에 作用力을 미치는 것은 알 수가 있으나 이들 變數간의 因果關係를 一意的으로 線型 혹은 非線型關係로 定義하기에는 어려우며 또한 變數간에 設定되는 模型을 통해 豫測(prediction) 등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回歸分析을 避하고 多分類分析을 揀한 것이다.

셋째, 多分類分析은 回歸分析 및 分散分析이 갖는 制約點을 脫皮할 수 있으면서도 說明變數 (= 獨立變數) 하나 하나가 從屬變數의 變異性을 나타내는 Eta係數(이는 單純相關係數와 類似함)와 模型에 利用된 說明變數들간의 相對的 重要度 혹은 相對的 影響度를 나타내는 Beta係數(이는 標準화된 回歸係數와 類似함) 및 模型에 利用된 모든 說明變數가 동시에 從屬變數를 說明하는 決定係數( $R^2 = \text{determinant coefficient}$ )를 볼 수 있어 名目變數가 많이 利用되는 研究에서는 比較的 자유스럽게 使用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9)</sup>

네째, 多分類分析은 上記와 같은 Eta, Beta,  $R^2$  값이 算出될 수 있어 回歸分析法의 利點을 살릴 수 있을 뿐아니라 說明變數의 各 變量(혹은 階級)에 屬하는 標本數와 함께 從屬變數의 平均값을 同時에 計算할 수가 있어 限界製表가 별도로 作成되지 않아도 分析模型속에 있는 變數들의 分布度 등은 볼 수 있는 편리한 點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多分類分析法을 使用할 경우 留意해야 할 點은 從屬變數는 그것이 量的變數이든 名目變數이든 相関이 없으나 說明變數의 경우에는 모든 變數값을 반드시 몇개의 階級(class)으로 区分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 Ⅲ. 分析指標의 設定

#### 1. 變數의 選定

本研究의 目的이 追加子女不願集團婦人의 避妊實踐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을 個人的 特性變數와 家族計劃變數에서 찾고자 했기 때문에 研究에 使用된 變數들도 이러한 觀點에 맞추어서 避妊實踐率을 從屬變數로 하고 獨立變數로는 応答婦人 個人的 特性을 나타내는 變數와 家族計劃事業에 關聯되는 變數들을 使用하였다. 本研究가 避妊實踐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을 究明하는

註 9) 만약 說明變數들이 모두 量的變數일 경우에는 多分類分析法 보다도 回歸分析法을 使用하는 것이 有用할 것이다. 즉 多分類分析法의 利點을 몇가지 列挙했으나 資料가 質的資料인 경우에 妥當한 것이며 量的資料인 경우에는 上記 條件에 별로 구해받을 必要가 없기 때문이다.

것이기 때문에 從屬變數를 避妊實踐率로 한것에 대해서는 問題가 없겠으나 獨立變數의 경우는 個人特性變數와 事業變數로 限定한데 대해서는 論議가 提起될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研究·發表된 出產이나 避妊實踐에 影響을 주는 要因에 관한 數 많은 研究<sup>10)</sup>들을 보면 事業變數에 限定시켜 分析된 研究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本研究에서는 事業變數를 中心으로 하되 事業이 받아들일 수 있는 與件으로서 個人的 特性을 考慮키 위해 個人特性變數도 獨立變數로 追加시킨 것이다.

本研究에 利用된 13個 獨立變數로는 應答婦人의 個人特性變數가 되는 居住地域, 年齡, 教育水準, 男便의 職業, 現存子女數(男兒 및 女兒包含) 및 現存子女에 대한 意見, 그리고 就業與否와 家族計劃事業關聯變數가 되는 「매스콤」을 통한 家族計劃接觸度, 家族計劃要員接觸度, 人工流產回數, 避妊副作用의 風聞에 대한 信賴程度, 副作用을 經驗한 避妊方法數등으로 하였다.

## 2. 變數의 階級区分

前節에서 列挙된 諸變數를 多分類分析에서 使用키 위해서는 從屬變數를 除外한 13個 獨立變數들은 몇個의 階級(class)으로 区分되어야 하며 本節에서는 이들 變數의 階級区分을 살펴 보기로 한다. 물론 階級区分을 달리함에 따라 算出되는 Eta, Beta 및 R<sup>2</sup>係數값이 多少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多分類分析法이 갖는 利點이 階級으로 주어지는 값에 따라 係數의 크기가 計算되는 것이 아니라 從屬變數의 크기에 따라 係數값이 決定되기 때문에 階級区分이 多少 恣意性을 띤다 해도 分析結果에서는 큰 問題가 되지 않기 때문에 研究者의 便宜에 따라 다음과 같이 階級을 区分했다.

獨立變數	項 目	階 級
居住地域	大都市	1
	中小都市	2
	農漁村	3
應答者年齡	24歲以下	1
	29歲以下	2
	34歲以下	3
	39歲以下	4
	40歲以上	5

註 10) 本研究의 獨立變數 選定을 위해 參考한 文献은 다음의 몇가지 代表的인 것을 列挙할 수 있다.  
 Davis, K. and J. Blake, "Social Structure and Fertility: An Analytical Framework,"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4, 1956, pp. 211~235.  
 Freedman, R., *The Sociology of Human Fertility: An Annotated Bibliography*, New York, 1975, p. 15.  
 Kim, Mo-Im, et. al., "Age at Marriage, Family Planning Practices, and Other Variables as Correlates of Fertility in Korea," *Demography* 11: 4, 1974, pp. 641~656.  
 Muller, E., "Economic Motives for Family Limitation," *Population Studies*, Vol.27, No.3, November 1972.

趙南勲, 李奎植, 洪性烈, 金星姬, 出產行態에 影響을 미치는 經濟的 要因分析, 家族計劃研究院, 1977.  
 金智子, 韓聖鉉, 高出產危險婦人의 避妊普及擴大方案研究, 家族計劃研究院, 1977.

独 立 変 数	項 目	階 級
応答者教育水準	無 学	1
	国民学校	2
	中学校	3
	高等学校以上	4
男便職業	無職 및 勞務職	1
	農·漁業	2
	事務職·商業·서비스業	3
	專門職 및 經營者	4
現存子女數	1名以下	1
	男兒數	2
	女兒數	3
	4名	4
	5名以上	5
「매스콤」을 통한 家族計劃接觸度 (新聞, 「라디오」, TV, 雜誌의 4 가지 媒体 중에서)	전혀 없었다.	1
	1 가지 媒体에서 接觸	2
	2 가지 媒体에서 接觸	3
	3 가지 媒体에서 接觸	4
	4 가지 媒体에서 接觸	5
家族計劃要員接觸 與否	接觸한적 없다	1
	接觸한적 있다	2
人工流産回数	經驗없다	1
	한번 한적 있다	2
	두번 한적 있다	3
	세번 以上 했다	4
避妊副作用에 대한 風聞	無關心하다	1
	風聞을 믿는다	2
	어떤 경우는 風聞을 믿는다	3
	風聞을 믿지 않는다	4
避妊副作用을 느끼는 程度 (콘돔, 먹는 避妊藥, 루우프施術中)	전혀 안느끼다	1
	한가지 方法에서 副作用을 느꼈다	2
	두가지 方法에서 副作用을 느꼈다	3
	세가지 方法에서 모두 副作用을 느꼈다	4

獨立變數	項 目	階 級
現在子女數에 대한 見解	아무런 생각이 없다	1
	너무적다	2
	적당하다	3
	너무많다	4
婦人의 現在就業與否	就業을 않고 있다	1
	就業을 하고 있다	2

한편 多分類分析法에서 從屬變數의 경우는 數量變數도 可能하지만 本研究에서는 避妊實踐與否라는 質的變數이기 때문에 避妊을 現在하고 있는 婦人을 1, 現在 避妊을 實施하지 않고 있는 婦人을 0로 하여 變量을 賦與하였다.

#### IV. 避妊實踐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13個獨立變數와 避妊實踐率間의 多分類分析은 <表 1>과 같이 6個의 相異한 模型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分析에 利用되는 變數가 달라짐에 따라서 Eta係數는 變化가 없지만 Beta係數 및 R<sup>2</sup>係數는 變化가 생기기 때문에 使用되는 變數差異에 따른 Beta 및 R<sup>2</sup>係數값의 差異를 보기 위함이다. 즉 6個의 模型을 보면 模型(1)과 模型(2)는 模型內의 變數가 類似한 性格을 갖는 變數群이지만 模型(3)에서 模型(6)까지는 性格이 相異한 變數들을 組合시켜서 Beta 및 R<sup>2</sup>값의 差異를 보고자 했다.

前述한 바와같이 Eta係數는 單純相關係數와 거의 같은 意味를 지니며 Beta係數는 標準化된 回歸係數와 거의 같은 意味를 지니기 때문에 本章에서는 Eta係數에 의한 相關係數와 Beta係數에 의한 獨立變數間의 相對的 影響度 分析을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 1. Eta係數에 의한 分析

Eta係數값은 獨立變數 各各이 從屬變數 즉 避妊實踐率과의 相關係數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多分類分析의 模型이 달라져도 그 값은 항상 一定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表1>에 나타난 Eta값의 크기 順으로 보면 婦人의 年齡, 副作用의 風聞에 대한 信賴度, 人工流産回數가 比較的 避妊實踐과 相關係數가 높은 變數群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높은 Eta係數값을 보이는 變數群은 現存子女數, 現存子女에 대한 많다는 생각, 婦人의 教育水準, 그리고 「매스컴」이나 家族計劃要員에 대한 接觸度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家族計劃要員에 대한 接觸度變數는 그 階級이 2個로 밖에 区分되지 않고 있음을 勘案한다면 事實上 避妊實踐與否와는 相關係

Table 1. Relative Importance of Variables, Associated with Contraceptive Use

Variables	Beta Coefficients Derived from MCA						Eta
	1	2	3	4	5	6	
Residence	0.019				0.074		0.078
Age	0.158			0.161			0.194
Education	0.123				0.170	0.108	0.145
Husband's Occupation	0.046						0.109
No. of Living Children	0.134		0.107				0.169
No. of Living Sons					0.108		0.099
No. of Living Daughters						0.083	0.087
Mass Media Exposure		0.074	0.069			0.063	0.133
F. P. Worker Contact		0.098	0.086	0.088	0.121		0.130
No. of Induced Abortion		0.145	0.130	0.147			0.183
Attitude toward Rumor		0.134	0.117	0.138			0.185
Side-Effect Experience		0.019	0.015			0.079	0.104
Satisfaction with Current Family Size			0.074		0.116	0.141	0.144
Employment Status				0.061	0.088		0.056
R <sup>2</sup>	0.070	0.072	0.090	0.096	0.075	0.054	

Note: All variables are significant at 5 percent level.

이 相当히 강한 것으로 把握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比較的 相關性이 弱한 變數들로서는 居住地 域, 婦人의 就業与否 및 現存男兒數, 現存女兒數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Eta係數 分析에 서 結果되는 特異한 點은 現存男兒數나 女兒數보다 全体子女數가 避妊實踐率과 더욱 相關關係 를 크게 가지는 點이며, 둘째는 個人特性變數와 事業關係變數 즉 「매스컴」을 통한 家族計劃接 觸度, 家族計劃要員接觸度, 人工流産回數, 副作用風聞에 대한 態度 등등의 變數와 相關關係가 거의 大同小異하다는 事實이다. 이제 이러한 具體的인 事項은 Beta係數 및 R<sup>2</sup>係數를 통해서 보다 잘 說明이 되겠지만 留意해야 할 點은 이들 各係數의 값이 매우 적게 나타나는 것이다. Eta 係數나 Beta係數가 0.2를 上廻하는 變數가 전혀 없으며, R<sup>2</sup>값은 0.1을 上廻하는 模型이 전혀 없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本多分類分析을 함에 있어서 使用된 獨立變數의 階級이 각기 5個 以內였으며 從屬變數는 變量이 0와 1로만 주어졌기 때문에 變數들의 變異(variation)가 적어 서 나타난 結果로 크게 問題視察을 必要는 없는 것이다.

## 2. Beta 및 R<sup>2</sup>係數에 의한 分析

먼저 上記 <表1>에 나타나고 있는 各 模型의 決定係數 값과 그 變化量을 살펴 보기로 한다. 模型(1)에서는 追加子女를 願치 않는 応答婦人들의 個人的 特性變數만을 使用했으며, 模型(2)에

서는 이들 婦人들의 家族計劃에 關係되는 變數만을 使用하였다. 結果 模型(1)과 模型(2)의  $R^2$  값은 各其 0.070, 0.072로 큰 差異가 없이 나타나고 있어 避妊實踐率에는 個人的 特性과 家族計劃事業要因이 거의 같이 作用하는 것으로 分析될 수 있다. 그리고 模型(3)에서 (6)까지는 個人特性變數와 家族計劃關聯變數를 混合配分하여 使用한 結果  $R^2$ 값은 0.054에서 0.096사이에서 分布되고 있다.

模型(3)에서 (6)까지의 4 가지 多分類分析結果가 提示하는 點은 人工流產回數 및 避妊副作用에 대한 風聞이 있는 模型(4)와 이들 變數가 빠진 模型(5)가  $R^2$ 값에서 差異를 보이고 있어 人工流產回數와 避妊副作用에 관한 風聞이 避妊實踐率 提高에 상당히 큰 作用을 함을 알 수가 있다. 이는 延世大 韓基春教授가 1977년에 實施한 家族計劃要員이 事業遂行上에 直面하는 어려움이 무엇인가하는 調査<sup>11)</sup>에서도 가장 큰 隘路點이 避妊에 대한 副作用과 그 風聞이라는 事實을 結付시킬 때 매우 類似한 結果로서 避妊對象 當事者나 事業要員 共히 避妊副作用에 대한 風聞이 實踐率에는 상당히 큰 作用을 미치는 것으로 分析되겠다.

한편 模型(6)에서는 模型(3)에서 使用된 變數中 要員接觸度, 人工流產回數, 避妊副作用에 대한 風聞등을 빼고 現存子女數대신 現存女兒數를 分析에 使用한 結果  $R^2$ 값이 0.090에서 0.054로 크게 낮아지고 있어 上記 列挙한 4 個變數가 避妊實踐與否에 상당히 큰 作用을 함을 나타낸다.

上記와 같은 決定係數의 크기나 變化量에 의해서는 使用된 獨立變數의 相對的인 重要度を 明確히 把握키는 어렵기 때문에 <表 1>과 <表 2>, <表 3>을 통해서 Beta係數에 의해 說明토록 한다. 가장 큰 Beta값을 갖는 變數는 Eta係數에서와 같이 婦人의 年齡變數이며 다음으로는 人工流產回數 및 避妊副作用에 대한 風聞, 그리고 婦人의 教育水準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높은 Beta값을 갖는 變數群은 現存子女數, 現存男兒數, 家族計劃要員의 接觸頻度 및 「매스콤」을 통한 家族計劃接觸頻度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實際로 經驗한 副作用回數나 居住地域은 큰 값을 나타내는 變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들 變數들의 Beta係數가 具體的으로 作用되는 方向과 各變數內의 階級에 屬하는 應答者들의 避妊實踐率등을 <表 2>와 <表 3>을 통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表 2>는 주로 追加子女를 願치 않는 應答者들의 個人的 特性變數만을 整理해 본 것으로 多分類分析模型(1)의 結果이며, <表 3>도 追加子女를 願치 않는 應答者들의 家族計劃에 關聯되는 變數만을 整理한 것으로 多分類分析模型(3)의 結果이다.

먼저 Beta係數값이 가장 큰 變數인 婦人의 年齡을 보면 <表 2>에서 40-44歲層婦人들만을 例外로 하고서는 대체로 年齡이 높을수록 避妊實踐率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15-24歲層婦人들은 追加子女를 願치 않는다고 應答하면서 避妊實踐은 겨우 35.5 퍼센트 만이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年齡階層은 全体平均(追加子女를 願치 않는 婦人全体) 57.4 퍼센트에 비해 무려 21.9

註 11) 韓 基春, 『家族計劃要員의 活動 및 作業環境이 事業成果에 미치는 影響』, 家族計劃研究院, 1978, p. 62.



Table 2. Relation Between Respondents Characteristics and Contraceptive Practice Rate  
(from MCA 1)

Grand Mean: 57.4% (Standard Deviation: 0.5%)

Variables	No. of Cases	Category Mean	Deviation from Grand Mean	
			Unadjusted	Adjusted
<b>Residence</b>				
Large Cities	1,210	60.7	3.3	- 0.8
Small Cities	649	61.8	4.4	1.9
Rural	1,701	53.3	- 4.1	- 0.2
<b>Age</b>				
15-24	121	35.5	-21.9	-14.5
25-29	586	51.7	- 5.7	- 7.6
30-34	916	65.5	8.1	5.2
35-39	1,033	65.9	8.5	8.5
40-44	904	46.0	-11.4	- 8.1
<b>Education</b>				
No School	437	43.9	-13.5	-10.1
Primary School	1,919	55.4	- 2.0	- 2.3
Middle School	655	61.8	4.4	4.3
High School or More	549	69.8	12.4	10.9
<b>Husband's Occupation</b>				
None and Labor	1,201	57.5	0.1	0.2
Agriculture	1,121	50.5	- 6.9	- 3.1
Clerical, Sales	990	62.4	5.0	2.7
Professional	248	67.7	10.3	1.9
<b>No. of Living Children</b>				
1 or Less	178	32.0	-25.4	-24.7
2	738	56.6	- 0.8	- 2.1
3	940	64.5	7.1	3.5
4	821	63.8	6.4	5.9
5 or Over	883	49.6	- 7.8	- 2.5

퍼센트 「포인트」나 實踐率이 떨어져 事實上 子女를 더 낳게될 所地가 많은 層이라 하겠다. 특히 이들 15-24歲階層은 年齡이 적기 때문에 現存子女數도 적을 것으로 여겨져 그들이 追加子女를 願치 않는다고 応答은 했지만 出產의 可能性은 충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階層의 婦人들에 대한 積極的인 避妊接近策은 그들이 追加出產을 한다해도 出產間隔을 크게 해주는 意味에서도 強調 되어져야 하겠다. 15-24歲層의 實踐率이 35.5 퍼센트 였

Table 3: Relation between Respondents' Characteristics and Contraceptive Practice Rate(from MCA 3)

Variables	No. of Cases	Category Mean	Grand Mean: 57.4% (Standard Deviation: 0.5%)	
			Deviation from Grand Mean	
			Unadjusted	Adjusted
<b>Mass Media Exposure</b>				
None	1,272	49.8	- 7.6	- 13.0
One Kind	1,078	57.9	0.5	- 1.3
Two Kinds	652	63.0	5.6	4.2
Three Kinds	388	65.0	7.6	5.3
Four Kinds	170	72.4	15.0	- 5.8
<b>F. P. Worker Contact</b>				
No	1,694	50.6	- 6.8	- 4.5
Yes	1,866	63.6	6.2	4.1
<b>No. of Induced Abortion</b>				
None	1,883	48.9	- 8.5	- 6.1
1	637	65.6	8.2	6.0
2	471	67.3	9.9	7.5
3 over	569	68.2	10.8	7.2
<b>Attitude toward Rumor</b>				
No Response	1,128	44.3	- 13.1	- 8.3
Believe	1,573	41.6	4.2	2.6
Depend upon Rumor	723	67.5	10.1	6.3
Not. Believe	136	63.2	5.8	5.6
<b>Satisfaction with Current Family Size</b>				
No Response	62	11.3	- 46.1	- 24.4
Too Small	168	41.7	- 15.7	- 7.3
Appropriate	1,717	59.1	1.7	0.7
Too Large	1,613	59.0	1.6	1.0

\*No. of living children and side-effect experience are also taken into account in the MCA (3)

으나 반면에 35-39歲層은 65.9 퍼센트로 全体平均에 비해 8.5 퍼센트 「포인트」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年齡이 많은 階層일수록 追加子女를 願치 않겠다는 意思가 避妊으로 쉽게 連結된다고 하겠다. 한편 40-44歲層 婦人에 이르러서는 다시 實踐率이 떨어지고 있는 바 이들은 自然不妊으로 인하여 避妊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겠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避妊에 대한 認識不足 혹은 無知등이 複合的으로 作用되어 나타나는 結果라 하겠다.

婦人年齡과 類似한 樣態를 보이는 變數가 現存子女數로서 現存子女數가 5名以上인 婦人들의 避妊實踐率이 오히려 全體平均에 비해 낮은 點이다. 이는 年齡이 40-44歲되는 婦人層에 대해서 說明한 바와 같은 事由로 이들 階層의 避妊實踐率이 낮은 것으로 評價될 수 있다. 그러나 現存子女數에서 注目되는 點은 追加子女를 願치 않는 婦人 3,560名 가운데서 5 퍼센트 에 該當하는 178名의 婦人들이 그들의 現在子女가 1名이거나 혹은 子女가 없는 點이다. 따라서 이들 階層婦人들은 追加子女를 願치 않는다는 応答은 하고 있으나 實際는 形便에 따라 子女를 낳으려는 動機가 있기 때문에 結果적으로 32.8 퍼센트 란 낮은 避妊實踐率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現在子女가 3名, 4名인 婦人들의 實踐率이 64.5 퍼센트 및 63.8 퍼센트 로 나타남은 이들 婦人들이 眞正으로 追加의인 子女를 願치 않기 때문에 避妊實踐率이 比較的 높은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応答婦人의 個人特性中에 比較的 Beta값이 큰 婦人의 教育水準을 보면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避妊實踐率이 높게 나타나는 點을 볼 수 있다. 즉 無學인 婦人層은 避妊實踐率이 43.9 퍼센트 로 全體平均 57.4 퍼센트 에 比해서 13.5 퍼센트 「포인트」가 낮은 反面에 高等學校以上の 學歷을 갖는 階層의 婦人은 69.8 퍼센트 가 避妊을 實踐하고 있어 無學인 婦人들보다 무려 25.9 퍼센트 「포인트」나 避妊實踐率이 높은 點이 나타나고 있다. 職業階層別로 보면 男便이 專門·經營職에 있는 婦人이 67.7 퍼센트, 男便이 事務職이나 販賣, 「서어비스」業에 從事하고 있는 婦人들이 62.4 퍼센트 의 避妊實踐率을 나타내고 있어 他職種 즉 單純勞動職이나 農漁業에 從事하고 있는 사람의 婦人들에 비해 專門化된 職種에 從事하는 사람들의 婦人이 훨씬 높은 避妊實踐傾向을 알 수 있게 한다.

한편 追加子女를 願치 않는 婦人들의 家族計劃에 關聯되는 變數들의 作用方向을 Beta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난 人工流産回數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表3>에서 人工流産經驗이 전혀 없는 婦人은 全體婦人의 52.9 퍼센트 인 1,883名이나 되며, 이들의 避妊實踐率은 48.9 퍼센트 로 全體婦人의 平均 57.4 퍼센트 에 비해 8.5 퍼센트 「포인트」가 낮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人工流産回數가 3回以上인 사람은 避妊實踐率이 68.2 퍼센트 나 되고있어 人工流産經驗이 많은 婦人들일수록 避妊實踐率이 높은 흥미로운 現象을 빚고 있다. 이는 人工流産을 자주 經驗한 婦人일수록 人工流産이 갖는 여러가지 폐단이나 副作用등을 생각하여 避妊의 必要性을 오히려 切感케 된 反面에 人工流産의 經驗이 없는 婦人들은 子女를 더 以上 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妊娠의 恐怖를 크게 갖지않아 避妊實踐이 低調하거나, 아니면 人工流産의 經驗이 없는 婦人들은 追加子女를 願치 않으나 妊娠이 된다면 子女를 낳을 수 있다는 態度가 있거나, 혹은 人工流産의 經驗없이 自然不妊狀態에 突入했거나, 하는 등의 理由로 인하여 避妊實踐率이 低調한 것으로 풀이 될 수밖에 없다. 人工流産 다음으로 큰 Beta값을 갖는 變數는 副作用 風聞에 대한 態度로서 風聞에 대해 아무런 關心도 없는 사람은 44.3 퍼센트 의 實踐率밖에 나타내지 않았으나 이를 믿거나 혹

은 믿지않는 사람은 全体平均을 上廻하고 있어 結局 避妊에 대한 関心度가 높은 사람일수록 避妊實踐을 더욱 많이 한다는 点を 알 수 있다. 특히 風聞에 대해서도 無條件 믿는 사람이나 無條件 風聞을 믿지않는 사람보다도 風聞을 選擇的으로 믿는 즉, 어떤 경우의 風聞은 믿고 어떤 경우의 風聞은 믿지 않는 사람의 避妊實踐率이 67.5 퍼센트 로 가장 높다는 事實은 그만큼 避妊에 대한 関心度가 높은 層일수록 避妊實踐率이 높다는 事實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다.

이러한 點은 「매스컴」을 통한 家族計劃接觸度變數 및 家族計劃要員接觸度變數를 통해서 보면 더욱 뚜렷하게 立證되는 것이다. 즉 家族計劃要員接觸與否를 보면 家族計劃要員과 전혀 接觸해 보지 못한 婦人들의 避妊實踐率은 50.6 퍼센트, 接觸해 본 婦人들의 避妊實踐率은 63.6 퍼센트 로 13.0 퍼센트 「포인트」라는 實踐率의 隔差를 나타내고 있는 點은 注目되며 그만큼 要員들의 活動이 事業成果에 影響을 미친다고 하겠다. 3,560名의 応答婦人 가운데서 47.6 퍼센트에 該當하는 1,694名의 婦人들이 家族計劃要員과 接觸해 보지 못했다는 事實은 現在의 家族計劃事業이 時急히 解決해야 할 課題라 보겠다. 특히 追加子女를 願치 않는 婦人들을 보면 세子女以上을 가진 婦人들이 74.3 퍼센트 나 되어 쉽게 事業의 対象 婦人으로 索出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47.6 퍼센트에 該當되는 婦人들이 家族計劃要員과 전혀 接觸해 보지 못하고 있다는 點은 要員運營上 再考되어야 할 事項이다.<sup>12)</sup>

그리고 「매스컴」을 통한 家族計劃接觸度變數 역시 接觸度가 많은 婦人들일수록 避妊實踐率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新聞, 雜誌, 라디오, T.V. 가운데서 어느곳에서도 家族計劃에 관한 것을 보지못한 사람은 避妊實踐率이 49.8 퍼센트 에 지나지 않았으나 네가지 「매스미디어」에서 모두 家族計劃에 관한 事項을 接觸했다는 사람은 避妊實踐率이 72.4 퍼센트 로 나타나 그 差異는 무려 22.6 퍼센트 「포인트」나 나고있어 家族計劃에 관한 関心이 높거나 家族計劃 情報에 관한 接觸을 많이 한 階層일수록 避妊實踐率이 높다는 事實을 立證해 주고 있다.

結局 追加子女不願集團의 避妊實踐에 影響을 미치는 背景要因을 個人的 特性和 家族計劃事業要因으로 大別시킨다면 이들 兩者의 影響力은 거의 같은 것으로 評價될 수 있으며 個人的 特性變數中에서는 婦人の 年齡, 教育水準 및 現存子女數가, 家族計劃事業關聯變數中에서는 人工流産回数, 避妊副作用에 대한 風聞, 家族計劃要員接觸度 및 「매스컴」을 통한 家族計劃情報接觸度 등이 提示된다.

### 3. 個人特性 및 事業變數가 少子女價值觀形成에 미친 影響

本研究의 主目的이 追加子女不願婦人들의 個人特性 및 事業變數가 避妊實踐에 미친 影響을 分析하는 것이지만 本節에서는 附加的으로 이러한 變數들이 避妊實踐을 하기 以前의 動機가 되

註 12) 이러한 點은 前述한 韓基春教授의 要員活動 및 作業環境이 事業成果에 미치는 影響이라는 研究報告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韓教授의 報告書에서 보면 要員의 活動變數보다 地域社會의 与件變數를 비롯한 事業環境이 事業成果에 더욱 크게 作用하고 있어 要員活動의 問題點을 볼 수가 있다.

는 少子女價值觀形成에 어느 程度 影響을 미치는지를 分析키로 한다. 事實上 追加子女不願婦人들이 子女를 더 以上 願치 않게 된데는 少子女價值觀이 形成되어서라기 보다는 그들이 現在 多子女를 갖고 있어서<sup>13)</sup> 이로 인한 不便性이나 혹은 非効用<sup>14)</sup> 때문에 더 以上의 子女를 願치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 그러나 本節에서 이들의 少子女價值觀形成을 보고자 한 것은 이들이 多出産을 한 以後에 事後的으로 나마 形成된 少子女價值觀이 家族計劃事業에 얼마나 影響을 받았으며 個人特性이라는 本人의 性質에서 얼마나 影響을 받았는가를 살펴 보기 위함이다.

특히 追加子女를 願치 않는 婦人이란 일단 그들이 現在子女數에 대해 滿足하여 이제는 出産이 完結되어도 좋다는 생각을 지녔다고 볼 수 있어 이처럼 出産이 完結段階에 와 있는 集團<sup>15)</sup>이 事後的으로 나마 形成된 少子女價值觀은 自身들의 지난날 出産行爲에 대한 後悔내지는 反省으로도 볼 수 있어 이들의 少子女價值觀<sup>16)</sup>은 아직도 出産이 未完結段階에 있는 追加子女希望集團에 至大한 影響을 미칠 것<sup>17)</sup>으로 判斷되어 이들의 少子女價值觀形成에 事業이 얼마나 影響을 미쳤는가를 分析키로 한다.

이제 本節의 分析을 위해서 從屬變數를 새로이 設定하였는 바 즉 政府의 두子女갖기 運動에 대한 贊成與否를 새로운 從屬變數로 하여 贊成하는 경우를 1, 그리고 反對하는 경우를 0로 하여 變量을 賦與한 다음 前節과 同一한 方法으로 多分類分析을 하였다.

多分類分析을 하기 以前에 追加子女不願集團의 子女에 대한 態度를 <表 4>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同表에서 現存子女數分布를 보면 3名以上을 갖는 婦人들은 避妊實踐者中 76.7 퍼센트, 非實踐者中 71.0 퍼센트 로써 前述한 바와같이 이들은 大部分이 多子女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現存子女數에 대한 見解를 살펴보면 「너무 많다」는 사람이 實踐者 가운데서는 46.6 퍼센트, 非實踐者 가운데서는 43.6 퍼센트 로 각기 나타나 追加子女를 더 以上 願치 않는 集團의 約 半程度에 가까운 婦人들이 現在의 多子女를 後悔하는 것으로 判斷할 수 있다. 現在 갖고있는 子女數에 대한 後悔감정은 結局 少子女價值觀으로 表現될 수 있는 바 <表 4>는 応答者의 79.6 퍼센트 에 이르는 많은 婦人들이 두子女갖기 運動에 贊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贊成率에 있어서도 避妊非實踐者보다 避妊實踐者가 높다는 點 注目되고 있다.

註 13) <表 4> 參照

14) 趙南勳, 李奎植 洪性烈, 金星姬, 出産行態에 影響을 미치는 經濟的要因分析, 家族計劃研究院, 1977年刊에서 이러한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15) 出産完結集團의 엄밀한 定義와는 약간 다르지만 追加子女를 願치 않음은 心理的으로 볼때는 出産이 完結된 狀態로 볼 수 있겠다.

16) 追加子女를 願치 않는 集團의 少子女價值觀이란 그들의 現存子女數를 根拠한 것이 아니며 (實際 그들의 現存子女數를 보면 多子女를 갖고 있음), 그들이 少子女 갖기에 대한 贊成與否에 의해 判斷한 것이다.

17) 經濟學에서 論議하는 展示效果作用이 여기에서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追加子女不願集團이 多子女를 贊成한다면 이는 자신의 出産을 後悔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態度는 아직 出産이 未完結된 集團에 게 많은 影響을 미쳐 未完結集團의 少子女價值觀 形成에 도움을 줄 것으로 判斷된다

Table 4. Number of Living Children, Satisfaction with Current Family Size and Approval of Two Children Slogan by Contraceptive Use

Unit: Persons (percent)

Classification	Unuser	User	Total
$X^2=123.3$			
No. of Living Children			
0	34 ( 2.2)	2 ( 0.1)	36 ( 1.0)
1	87 ( 5.7)	55 ( 2.7)	142 ( 4.0)
2	320 (21.1)	418 (20.5)	738 (20.7)
3	334 (22.0)	606 (29.7)	940 (26.4)
4	297 (19.6)	524 (25.6)	821 (23.1)
5	238 (15.7)	269 (13.2)	507 (14.2)
6 or More	207 (13.6)	169 ( 8.3)	376 (10.6)
Total	1,517 (100.0)	2,043 (100.0)	3,560 (100.0)
$X^2=73.3$			
Satisfaction with Current Family Size			
Too Large	661 (43.6)	952 (46.6)	1,613 (45.3)
Appropriate	703 (46.4)	1,014 (49.6)	1,717 (48.2)
Too Small	98 ( 6.5)	70 ( 3.4)	168 ( 4.7)
Never Thought About it	9 ( 0.6)	1 ( 0.0)	10 ( 0.3)
Unknown	45 ( 3.0)	6 ( 0.3)	51 ( 1.4)
Total	1,516 (100.0)	2,043 (100.0)	3,559 (100.0)
$X^2=25.4$			
Approval of Two Children Slogan			
Approve	1,174 (77.4)	1,658 (81.3)	2,832 (79.6)
Neutral	133 ( 8.8)	168 ( 8.2)	301 ( 8.5)
Disapprove	181 (11.9)	209 (10.2)	390 (11.0)
Unknown	29 ( 1.9)	7 ( 0.3)	36 ( 1.0)
Total	1,517 (100.0)	2,042 (100.0)	3,559 (100.0)

이제 <表 5>를 통해 追加子女不願集團婦人의 少子女價值觀形成背景을 살펴 보기로 한다. 同表에서 Eta係數 및 R<sup>2</sup>變化量에 의한 說明은 略하기로 하고 Beta係數를 中心으로 하여 少子女價值觀形成에 가장 重要한 影響力을 미치는 變數를 살펴보면 应答者 自身の 現存子女數 및 現存의 子女數에 대한 意見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其他 變數로는 居住地域과 「매스콤」을 통한 家族計劃接觸度變數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現存子女數 및 現存子女數에 대한 意見이 強한 說明變數가 된다는 點은 避妊實踐与否와는 달리 家族計劃事業이 큰 影響을 미치게 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結局 追加子女不願集團의 少子女價值觀은 自身들이 體得한 多子女로 인한 不利點에서 緣由함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는 家族計劃研究院에서 이미 研究된 바 있는 經濟的動機와 出產力間의 相關關係研究에서 指摘한 바와같이<sup>18)</sup> 父母들이 出產에 대해서 經濟的損

註. 18) 趙南勳, 李奎植, 洪性烈, 金星姬, 出產行態에 影響을 미치는 經濟的 要因分析, 家族計劃研究院, 1977.

Table 5. Relative Importance of Variables Associated with Approval of Two Children Slogan

Variables	Beta Coefficients Derived from MCA					Eta
	1	2	3	4	5	
Residence	0.093			0.095		0.132
Age	0.049					0.137
Education	0.048			0.089	0.085	0.130
Husband's Occupation	0.065					0.120
No. of Living Children	0.135		0.316			0.195
No. of Living Sons				0.127		0.135
No. of Living Daughters					0.136	0.120
Mass Media Exposure		0.109	0.048		0.063	0.119
F. P. Worker Contact		*	*	*		0.005
No. of Induced Abortion		0.027	*			0.035
Attitude toward Rumor		0.054	0.038			0.068
Side-Effect Experience		0.055	*		*	0.040
Satisfaction with Current Family Size			0.267	0.161	0.176	0.142
Employment				0.003		0.031
R <sup>2</sup>	0.050	0.016	0.092	0.058	0.054	

Note: \* Means not significant at 5 percent level.

益을 計算하고 있음을 立證함과 同時에 少子女價值觀 形成을 위한 戰略으로서 多子女가 갖는 經濟的 不利益을 強調할 必要性을 提示해야 함을 意味한다. 그리고 上記 兩變數外에 居住地域 變數와 「매스컴」接觸度變數가 強한 說明變數가 된 近代化내지 社會變化가 少子女觀을 誘導하는 間接的 指標가 될 뜻한다. 그러나 本分析에서도 留意해야 할 點은 家族計劃要員接觸度變數가 전혀 意味 없는 變數로 된다는 點으로 이는 家族計劃要員을 避妊普及業務에만 그 機能을 局限시켰음을 여실히 나타낸다. 이미 前節에서 본 바와같이 家族計劃要員의 活動이 상당히 不振했었으며 不振한 가운데서도 要員의 活動이 家族計劃의 促進을 위한 根本的인 弘報機能은 度外視하고 단지 避妊普及機能에만 注力시킨 나머지 要員이 對象者의 少子女價值觀形成을 위한 活動은 하지 못했음을 볼 수 있게 한다.

## V. 結 論

追加子女不願集團婦人의 避妊實踐에 큰 影響을 미치는 變數들로는 年齡, 教育水準, 現存子女數와 같은 個人特性變數와 人工流産回數, 家族計劃要員接觸度, 副作用 風聞에 대한 信賴度와

같은 事業關聯變數가 나타났으며 이들婦人의 少子女價值觀에 큰 影響을 미치는 變數로는 現存子女數, 現存子女數에 대한 意見, 居住地域과 같은 個人特性變數가 나타났다. 그리고 避妊實踐에는 個人特性變數群과 事業關聯變數群의 作用力이 거의 비슷했으며 少子女價值觀形成에는 個人特性變數群의 作用力만 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結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몇가지 結論은 다음과 같다.

첫째, 避妊實踐에 個人特性變數와 家族計劃事業變數의 作用力이 거의 같았다는 것은 避妊實踐率을 提高시키기 위한 政策的인 接近으로서 個人的 特性을 左右시킬 수 있는 事業外的 方案과 家族計劃事業內的인 接近策이 複合的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個人的 特性을 變化시킬 수 있는 方案의 講究는 單純한 手段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특히 家族計劃事業이라는 側面에서는 變化시킬 수 없기때문에 結局 事業의 強化를 통한 接近策만을 強調할 수 밖에 없다.

둘째, 少子女價值觀의 決定因子를 보면 個人特性變數의 作用力이 거의 大部分이며, 事業에 關聯되는 變數라 해도 「매스콤」을 통한 家族計劃情報接觸도와 같은 變數가 影響力이 있는 變數로 擡頭하고 있음은 少子女價值觀形成이 個個人的 特質에 左右됨을 立證시키고 있다.

세째, 上記 두가지의 結果를 土台로 하면 避妊實踐率 提高에는 家族計劃事業이 큰 作用力을 해왔다고 볼 수 있으나 價值觀形成에는 家族計劃事業이 거의 作用力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事實을 볼 수 있어 事業의 機能面에서 檢討가 要望된다고 하겠다. 즉 少子女價值觀 形成이 男兒 選好觀등으로 인해 沮害되고 있다면 이러한 沮害要因에 대한 除去方法등이 事業內部問題로 解決되어야만 結果的으로 出産力을 低下시킬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問題는 事業으로서 接近 할 수 없다는 式의 態度는 根本問題를 放置하는 結果밖에 안되는 것이다.

네째, 事業의 機能的 側面的 檢討를 위해서는 먼저 家族計劃要員의 活動이 積極化 되어야만 할 것이다. 避妊實踐率을 分析한 多分類分析模型에서 家族計劃要員接觸度變數가 매우 說明力이 큰 變數로 나타났다는 점은 要員의 活動이 實踐率提高에 影響을 미치는 效果가 크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나 追加子女不願婦人의 47.6「퍼센트」가 家族計劃要員을 接觸한 經驗이 없다는 事實은 큰 問題點으로 指摘될 수 있다. 특히 人工流産 經驗이 많은 婦人일수록 實踐率이 높았던가 副作用 風聞을 無條件 믿거나 혹은 無條件 믿지 않는 婦人보다 選別的으로 믿는 婦人의 實踐率이 높다는 事實은 그만큼 對象者가 避妊에 대한 理解도가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나 要員의 活動이 이처럼 不振하여 理解도가 높은 對象者를 事業속에 充分히 끌어오지 못하는 점은 事業內에서 反省되어야 할 課題라 하겠다. 그리고 要員活動上에 있어서 볼 때 그 活動機能을 避妊普及에만 注力시킬 것이 아니라 對象者들로 하여금 少子女價值觀을 形成시키도록 誘導하는 機能도 아울러 遂行토록 그들의 活動領域을 擴大시켜야 하겠다. 즉 少子女價值觀形成에 要員接觸度變數를 爲始한 大部分의 事業關聯變數가 影響力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지금까지 事業이 價值觀誘導에는 等閒視하여 왔으며 結果的으로 要員들도 이를 等閒視하여 나타난 結果라



分析될 수 있겠다.

追加子女不願集團의 74.3 퍼센트 가 세子女以上이며, 두子女갖기 運動에 贊成하는 婦人이 79.6 퍼센트 가 됨에도 불구하고 避妊實踐은 57.4 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 이와같은 「罅」(Gap) 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이들 婦人들에 대해 보다 具體的인 理由로 少子女價值觀이 形成되도록 誘導시켜야 한다. 즉 막연하게 現在 子女가 3, 4名 있어서 追加子女를 願치 않으며, 政府가 벌이는 두子女갖기에 贊成한다는 態度가 아니라, 現在 父母들의 立場과 子女의 養育上 어려움을 勘案하여 發展하는 未來社會속에 자기들의 子女가 보다 훌륭하게 成長키 위해서는 많은 子女보다 적은 子女를 가져 이를 잘 養育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具體的인 立場을 堅持토록 誘導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思考는 바로 避妊實踐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는 點을 周知시켜야 한다.

經濟的動機理論이 提示하는 바와같이 經濟發展이 子女의 效用은 減少시켰으나 社會毛細管化 現象의 深化에 따른 子女教育費增大등의 要因으로 子女의 非効用이 增大되는 點이 우리나라 社會에서도 妥當性있게 適用된다는 事實, 그리고 經濟發展으로 多樣해진 消費財出現이나 娛樂活動의 增大 등에 의한 父母의 消費欲求增大가 子女養育費支出과 相互競爭的 내지는 代替的이라는 事實 등을 보다 널리 強調하여 少子女觀이 막연한 理由가 아니라 具體的 理由로 形成되었음을 周知시켜 避妊의 當爲性을 傳達시켜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1. 家族計劃研究院. 1976年 全國出產力 및 家族計劃評價調查. 1978.
2. 金智子, 韓聖鉉. 高出產危險婦人의 避妊普及擴大方案. 家族計劃研究院. 1977.
3. 保健社會部. 1965年度 全國家族計劃實態調查報告. 1965.
4. 李奎植, 趙南勳, 金星姬. 消費欲求의 變化 및 婦人의 經濟活動과 出產行態. 家族計劃研究院. 1978.
5. 趙南勳, 李奎植, 洪性烈, 金星姬. 出產行態에 影響을 미치는 經濟的 要因分析. 家族計劃研究院. 1977.
6. 韓聖鉉, 李時伯. “出產進度에 影響을 주는 要因分析” 家族計劃論集, 第4號, 1977.
7. 韓基春. 家族計劃要員의 活動 및 作業環境이 事業成果에 미치는 影響. 家族計劃研究院. 1978.
8. Andrews, F. M., J. N. Morgan, J. A. Songquist and L. Klem.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78.

9. Davis, K. and J. Blake. "Social Structure and Fertility: An Analytical Frame Work,"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4, 1956.
10. Freedman, R., *The Sociology of Human Fertility: An Annotated Bibliography*, New York, 1978.
11. Kim, Mo-Im, et. al., "Age at Marriage, Family Planning Practices and Other Variables as Correlates of Fertility in Korea," *Demography*, 11:4. 1974.
12. Muller, E., "Economic Motives for Family Limitation," *Population Studies*, Vol. 27, No. 3, Nov. 1972.
13. The Population Council. "East-Asian Review, 1976~1977," *Family in Studies Planning*, Vol. 9, No. 9, Sept. 1975.

<Abstract>

Influence of Individual Background Characteristics  
and Family Planning Variables on  
Women's Contraceptive Practice Behavior:  
A Study of Those Who Want No More Additional Children

Kyu Sik Lee\* · Nam Hoon Cho · Kyung Kyun Chung\*\*

**Family Planning Problem Areas**

The Korean National Family Planning has been regarded as successful but it is often criticized as being stagnant. The practice rate among eligible couples of ages 15 to 49 was estimated at 44.2 per cent in 1976 and it is believed not to be rising any longer. Most program authorities tend to attribute this stagnation simply to remaining traditional cultural influence, that is boy preference. This attitude has long been recognized as a problem which must be tackled outside of family planning. Many efforts and considerable budget have been devoted to solving this problem and as a result the family size norm has to some extent been altered, but there are still many couples who do not practise family planning because they have no boy. No one knows exactly what the proportion of this group is to total number of eligible couples, but boy preference is surely one barrier which is causing stagnation in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This, however, is a problem difficult to solve in a limited period merely via the family planning program, since it is a cultural matter needing a long time to change.

What significant barrier then can be tackled by and within the family planning program? The Korean data for the World Fertility Study carried out in 1976 by the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reveal that 82.7 per cent of 6,020 subjects are satisfied with the current family size or conceive their current family size to be too large. Moreover, the percentage of the group which definitely does not want another pregnancy was 57.4 per cent out of which only 42.6 per cent do not practise family planning. This problem group of 42.6 per cent is represented 25.3 per cent of the total national sample, implying that when this is added to 44.2 per cent, the current practice rate, it might well reach

---

\* Researcher, KIFP.

\*\*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70 per cent for the national practice rate.

We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fact this 25.3 per cent of has nothing to do with boy preference but is easily motivated to terminate pregnancy, and are waiting for services that can be provided by the family planning program.

We label this group "pong-eem" and it is a group which could be helped WITHIN FAMILY PLANNING, rather than BEYOND FAMILY PLANNING.

###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dependent variable, that is, the family planning status of those who do not want additional pregnancy, the following shows significant influence. Appearing are such variables manipulatable by the family planning programs a) contact with family planning workers, b) exposure to FP message through mass media, and c) attitudes toward rumors on contraceptive methods.

Although all of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also turned out to be important factors associated with family planning status, these variables are not variables to altered by the family planning program. In this sense, most of the research that called attention to this sort of variable provide the program authorities with little help for program implementation. Based upon findings of this study, we wish provid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that we hope will be taken immediate consideration in program planning to help those who do want additional pregnancies but do not practise family planning.

A. Guidelines for and supervision of the activities of family planning field workers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they make more home visits to those who do not want additional pregnancies but do not practise birth control. These couples could easily be identified from the family health record card.

B. More messages on the idea of small family norm, Contraceptive methods and localized information on service sites should be disseminated through mass media. It is desirable to publish more pamphlets and leaflets and they should carry localized information as well.

C. Strong counter-measures against negative rumors about contraceptive methods be should immediately developed and put into effect. More active use not only of mass media including pamphlets and leaflets but also th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through Saemaeul networks and Mothers' clubs is strongly recommended to combat unfavorable rumors.

D.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term "WITHIN FAMILY PLANNING", not only "BEYOND FAMILY PLANNING". Once again, we need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fact that 82.7 per cent of the total number of eligible couples are already satisfied with this current family size and the fact the proportion of those who are clearly determined not to have an additional pregnancy is 59.1 per cent out of which 42.6 per cent do not practice birth control. They are waiting for our immediate services within family planning not beyond family planning.